충남에 남겨진 고려 흔적들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1245년 간행 〈사아함모초해〉
수덕사 〈묘법연화경〉 최초 공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에 남겨진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수덕사 무이당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7을 비롯해 국보 110호 이제현 초상 등 225건 280여 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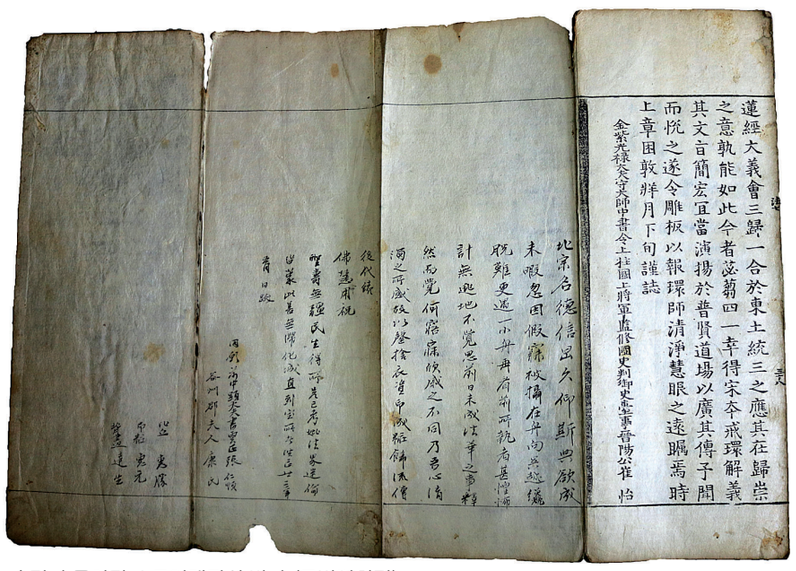
918년 건국 후 936년 통일까지 고려는 견훤의 후백제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만큼 충청남도는 고려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왕건이 고려 건국 후 천안과 홍성에 도시를 세우고, 통일 후 개태사를 창건한 것 등도 충청남도가 지닌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교통의 요충지로 전라도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따라서 조운과 운하가 발달한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불좌상.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촉사 석조미술보살입상과 같은 거석불의 원류가 되는 곳이다. 특히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현, 이곡, 이색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학문적 토대가 된 곳이다. 총 5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고려를 이야기한다.

△제1부 '왕, 중세도시와 불사'와 △제2부 '인물, 역사의 선구자들'에서는 충청남도에 남겨진 고려시대 왕들의 행적과 충청남도 출신 인물들의 활약상을 만나볼 수 있다.

△제3부 '개경으로 가는 길, 조운과 운하'에서는 충청남도에 있었던 고려시대 조창과 굴포운하, 서해 안흥량에서 침몰한 고려시대 선박과 고려청자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제4부 '생산과 소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발견 〈묘법연화경〉.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발견 〈사아함모초해〉.

비 청자와 금속기의 대중화'에서는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사찰과 불교미술, 매향 활동 및 이 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을 조명한다.

△제5부에서는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최이(?~1240)의 발문이 있는 〈묘법연화경〉 권7과 1245년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사아함모초해〉가 최초로 공개된다.

최근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7은 1240년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이가 간행한 것으로 발 무늬가 없는 두터운 닥종이로 제작된 점, 글자 획이 살아있고 상하 곽선에 손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인출 후 바로 복장에 넣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아함모초해〉는 〈사아함경〉의 의의를 분류하고 해석한 책으로 1245년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술 세미나도 진행된다. QR코드로 퀴즈를 풀어보면서 전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문화재를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전시의 이해를 돕는다.

고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문화유적 탐방'으로 충청남도의 고려시대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한다.

11월 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시가 주최하는 '고려시대의 충청남도'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041)850-6364.

고려 단차 복원과정 한 눈에

'아름다운 차 문화, 고려시대를 만나다' 展
부산문화회관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 같은 기간 특별 전시 '아름다운 차 문화, 고려시대를 만나다'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이 지향했던 차문화의 격조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문헌과 유물 연구를 토대로 고려 단차를 복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 단차 복원과 차 마시는 전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되며, 하빈 이명균 도공이 복원한 청자 찻그릇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고려 단차를 복원한 박동춘 소장.

전시는 1부 '단차 만들기', 2부 '차 끓이기', 3부 '현대 도공이 복원한 청자 찻그릇'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11월 24일(오후 2시~4시)에는 고려시대 점다법을 재현하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박동춘 소장은 지난 7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고려시대 단차의 특징' 특별 강연을 통해 복원된 고려 단차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고려시대는 불교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인해 차 문화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이 즐겼던 차는 바로 단차(團茶)입니다. 이는 매우 섬세하고 감미로운 색과 향, 맛을 지닌 극품의 차입니다. 우리는 단차 복원을 통해 고려인들이 지향한 문화의 격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고 했을만큼 고려 단차의 복원은 한 시대의 문화를 복원한 것이며, 불교의 시대가 그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날 박 소장은 고려 단차의 복원 과정도 대중에게 공개했다. 찻잎 따기부터 △찻잎 고르기 △시루에 찌기 △식히기 △고(膏) 짜기 △돌절구에 찧기 △청자 다연에 갈기 △틀에 넣고 찍어내기 △무쇠가마솥에서 건조 △온돌 건조로 이어지는 제다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섬세한 공정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차 문화가 융성할 수 있던 점에 대해서는 '불교'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국왕이 직접 찻잎을 갈아 차를 만들어 불단에 공양한 '공덕재'의 기록이 나올 정도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가 제도화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불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사찰경제가 발전했고, 차를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한 선종이 활발해지면서 차 문화 융성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왕실 귀족과 관료 문인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정신음료로서 차를 음용케 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려 단차를 복원한 박 소장은 올해로 39년째 차 이론과 제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초의, 범해, 원응, 응송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제다법을 잇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 특별전

12월 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10월 2일 보물지정 기념
국내 기와 문화재 지정 처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0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를 특집 진열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10월 2일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집진열이다. 국내 기와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기와다.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

이 수막새는 1934년 골동상점에서 거래된 뒤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故 박일훈 前 국립박물관 관장이 그 소재를 수소문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키타규우슈우시의 타나카 토시노부 씨가 소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1972년 10월 14일에 기증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얼굴무늬 수막새는 틀[와범 · 瓦范]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세부 모습을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정교하고 자연스런 솜씨의 숙련된 장인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신라의 기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얼굴 전체적 모습이나 분위기가 남산 장창곡 출토 삼존석불의 협시보살상과 유사한 점과 황룡사지 출토 망새의 얼굴무늬와 흡사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말 무렵 즉 7세기에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